

# 익산시, 신청사 건립 내년 착공 가시화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최종 승인 등 행정절차 마무리 공유지 개발 등 다각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재정부담 최소화

익산시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2020년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공유지 개발을 통한 재원확보에 나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청사부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난 8일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시는 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최근에는 전북도에 의뢰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3만9271㎡,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된다. 청사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504대, 2청사 부지에 280여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건립해 총 78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사 지상공간에는 시민의 휴식과 다양한 여가선용에 활용 할 수 있는 열린시민광장 등을 조성한다. 청사 내에는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홀과 시민회의실,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신청사는 2020년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까지 건립된다. 이와 함께 청사건립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LH와 함께 시가 소유한 공유지인 옛 경찰서와 상수도사업단 등에 대한 수익모델 개발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건

립기금도 마련하고 있다. 기금은 올해 100억원을 추가 적립해 약 200억원 가량이 적립돼 있는 상태다. 시는 신청사를 단순한 행정업무 보는 관청 개념을 넘어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도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사 건립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남원시,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남원시가 지난 8일 춘향문화예술회관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남원지역 이·통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원지역 495명의 이·통장 중 176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여러분은 남원의 리더입니다’ 주제 특강을 통해 마을과 소통하는 자

세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교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앞장서 선진 지방자치 실현에 선봉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상수도관 세척 공사 모습.

## 순창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 본격 추진

### 수자원공사와 함께 5년간 168억 투입 노후관 정비

순창군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순창 읍내를 대상으로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1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노후 관망 정비와 누수 탐사,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진다. 이번에 진행되는 상수도관 세척은 순창 읍내 노후 관망 정비 시 발생하는 탁수 민원을 예방하고 더 맑은 수돗물을 군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관 안으로 공기를 주입해 관에 낀 물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군은 지난달 23일 시범적으로 심야 시간에 순창읍 옥천동 일원 95가구에 상수

도 공급 관로 세척을 시행, 수돗물 수질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순창읍내 2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세척 작업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세척 작업 시 심야에는 수돗물 공급이 일시 중단된다. 군은 단수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는 순창읍 주민들을 위해 집마다 방문해 사전 설명으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먹는 샘물도 준비하고 있다. 안동용 순창군 환경수도과장은 “세척 작업이 완료돼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에는 반드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



유진섭(가운데 오른쪽) 정읍시장이 정읍라벤더 허브원 관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 정읍시, 라벤더 활용 관광산업 개발 나서

### 시, 정읍라벤더 허브원과 협약...볼거리·즐길거리 조성

정읍시가 라벤더를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에 본격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7일 정읍라벤더 허브원(대표 이명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민과 공감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읍라벤더 허브원은 구룡동 약 33만㎡ 터에 약 9만9000㎡ 규모의 라벤더를 활용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시는 라벤더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트렌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정읍라벤더 허브원은 농업관광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공유하고 허브원이 조성한 부지와 기타 시설 활용에 적극적

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협력사업과 농업·관광정책 개발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원 정읍라벤더 허브원 대표는 “시에서 필요한 농업, 관광, 축제에 대해 조성된 부지와 기타시설 활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협약이 시와 정읍라벤더 허브원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라벤더의 가치를 꾸준히 홍보해 라벤더 테마 마을로 다시 태어나 농촌 관광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시, 김장철 식품 제조업소 위생점검

군산시가 김장철을 앞두고 위생점검 활동으로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섰다. 군산시는 김장철을 대비해 오는 22일까지 김장 관련 식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총 78개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시설·설비기준 적합 여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의 적절성 ▲원료보관실, 세척실, 제조과정 등 청결관리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시행여부 소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춧가루, 김치류, 젓갈류 등을 수거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한지를 의뢰해 안전성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숙자 군산시 위생행정과장은 “김장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및 사전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고창군,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창군이 2020년 1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근거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50㎍/㎥초과와 일일 50㎍/㎥초과 예보 등 발령조건 충족시 전북도지사가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일(오전 6시~오후 9시)에는 CCTV로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운행제한 예외차량으로는 긴급자동차 및 장애인 표지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1~7급), 보호대상대상자(1~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 특수 목적 자동차,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부착 차량 등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통해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해 관내 대기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sup>해방</sup>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문흥지점), 573-4150 (양산지점), 528-4150 (운암지점), 513-4150 (운암산지점), 572-4150 (매곡지점), 576-4150 (침단지점)